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⑱ 스미소니언 〈지장보살도〉 ①

▶ 한줄 요약
미국 워싱턴 스미소니언 프리어갤러리에 소장된 고려불화 〈지장보살도〉는 지장보살 단독상 중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이 손에 든 여의주는 무명의 타파하는 '깨달음'을 상징한다.



여의주 든 지장보살, 무명 밝히네

우리나라 〈지장보살도〉의 단독상 그림으로, 시대가 가장 올라가는 작품 중 하나가 미국 땅에 있다. 미국의 스미소니언(Smithsonian)의 아시아 미술 박물관인 프리어 갤러리(Freer Gallery of Art)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아시아 예술품이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 소장된 〈지장보살도〉는 고려시대 귀족불교의 극치를 보여주는 듯, 우아하고 고상한 풍모가 단연 최고의 품격이다.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Smithsonian Institution)은 미국 수도 워싱턴에 위치하고, 총 19개의 다양한 국립박물관을 총괄한다. 특히 스미소니언의 항공우주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 등은 세계 최고 최다 소장품으로 세계인의 관광지로 유명하다.

워싱턴서 만난 고려 지장보살

수년 전, 미국 프리어 갤러리에 소장된 한국 유물을 조사하던 중, 당시 아시아 담당 학예사였던 유키오 리빗(현재 하버드대 미술사학 교수)이 최근 구입한 것이라면서 작품 한 점을 갖고 나왔다. 본지에 소개하는 고려불화 〈지장보살도〉였다.(그림①) 필자가 조사한 다수의 고려시대 지장보살 독존상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우선 얼굴 상호가 원만하고 후덕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몸체의 맵시가 압권이다. 왼발을 살짝 내밀고 무게 중심을 뒷발에 실었는데, 이로 인해 우측(정면에서 보아) 옷자락이 미풍에 날리듯 포물선을 그리며 뻗어 있다. 물론 과하지 않게 살랑 끝자락이 날리듯 처리했다. 지물(持物)인 석장은 비스듬히 왼쪽 어깨에 걸치고 손으로 바치고 있다. 손가락 모습은 마치 첼로를 켜듯 매끄럽다. 한편, 오른팔은 접어 올려 손목을 꺾어 그 위에 여의주를 살포시 들고 있다.(그림②) 검지와 엄지로 살짝 쥐고 있고 나머지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펼쳤다. 섬섬옥수 손가락 중 특히 새끼손가락을 툭 떨구고 있는 모습에서, 섬세한 우아함을 십분 느낀다.

지장보살 독존상 중 최고 명작

가사 옷자락의 떨어지는 선 · 긴 석장의 각도 · 동그란 여의주를 쥐고 있는 손모양 등에는 과장되지 않은 고상함이 있다. 미풍에 날리듯 흔들리는 아랫단, 무관심한 듯 몸에 기댄 석장. 하지만 여의주는 잘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는 듯, 손을 어깨까지 들어 올려 제시하고 있다. 진한 보랏빛 계통의 감색(紺色) 가사와 그 안에 입은 붉은 군의(裙衣)의 채도와 색감의 대조가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가사와 장삼 위를 수놓는 반짝이는 금니(金泥) 문양이 영롱하게 빛난다. 도톰한 발을 받치고 있는 활짝 핀 붉은 연꽃 속에는 비단 실같이 가는 금선의 입맥이 한 가득이다. 연꽃잎의 안쪽 가장자리는 분홍의 엷은 색이고, 내부로 갈수록 점차로 붉은색이 짙어진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톤의 변화와 금니 선의 영롱함이 어우러져 매우 고급스럽다.

'地藏', 땅이 만물을 품듯!

지장보살의 세련된 포즈와 기품 넘치는 디테일의 조화.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장보살의 '부드러운 카리스마!' 신비한 매력을 유감없이 발산하고 있다.

지장보살은 우리에게 '지옥 구제의 보살' 또는 '업장 소멸의 보살'로 잘 알려져 있다. 지장보살은 우리의 가장 깊고 어두운 악업을 소멸해 '삼악도(지옥 · 아귀 · 축생의 세계)'에서 구해준다. 기본적으로 악업이 소멸되어야 해탈하기에, 지장보살은 '영가천도'와 직결되는 존격이다.

美스미소니언 소장 지장보살도
지장보살 단독상 중 최고 수준
중생 구제 지장보살이 손에 든
여의주, 무명 타파 깨달음 상징

"온갖 위험과 고난에서 구해주기는 부모와 같고, 여러 가지 비겁하고 용렬한 것을 감싸주기는 우거진 숲과 같고, 여름에 먼 길을 가는 이에겐 쉬어 갈 큰 나무와 같고, 더위에 목마른 자에겐 맑은 샘물과 같고, 굶주린 이에게는 달디 단 과실과 같고, 몸이 드러난 자에겐 의복과 같고, 더위에 시달리는 자에게는 두터운 큰 구름과 같고, 빈궁한 자에겐 여의보주와 같고, 두려워 떠는 자에게는 편안히 의지할 바가 되고, 갖가지 곡식을 가꾸는 이에게는 단비가 되고…."

〈지장십륜경(정식 제명: 대승대집지장십륜경)〉에는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지장보살의 역할이 쓰여있다. 중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는 전지전능한 면모는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나오는 관세음보살과 유사하다. 하지만, 관세음보살이 응신하여 구제하는 '7난3독'의 상황들은 사건 사고들로 구성되는, 목숨이 위험에 처한 극한 상황들이다. 반면, 지장보살의 경우에는 중생이 일상적으로 겪는 궁핍과 상실, 고통까지 모두 포함된다.

선업 '증장'시켜 '악업'서 구한다

마치 어찌할 바 모르는 아기를 자신의 품에 꼭 껴안아 주듯, 무엇이든 포용하는 따스함이 느껴진다. 지장보살의 어원은 범어 '키시티가르바(Ksiti-garbha)'이다. '키스티'란 '대지(大地)'를 뜻하고, '가르바'란 '생명을 품는 태(胎)'를 의미한다. 이것을 직역하면 '지장(地藏)'이 된다. 말 그대로, 이 땅(지구)를 거대한 자궁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고대 인도의 '대지의 신'인 '대모지신(大母地神, Mother Earth)'과 직결된다. 어머니가 아이를 품듯, 대지가 세상 만물을 품어 발육 성장시키는 '신성한 힘'을 상징한다. 땅이 차별 없이 만물을 품어 함장하고 성장시켜 지상에 내어놓듯, 지장보살 역시 중생이 어떤 악업을 지어도 차별 없이 품어 극락으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다.

"수명을 증장시키고, 신체를 증장시키고, 무병토록 증장시키고, 수명을 증장시키고, 몸의 힘을 증장시키고, 명성을 증장시키고, 자구를 증장시키고… 〈중략〉 유정을 성숙시키는 일을 증장시키고, 대자대비를 증장시키고, 일체 선법을 증장시키고, 대지(大地)의 정기와 자양분을 증장시키고, 일체 중생의 정기를 증장시키고…."

〈지장십륜경〉에는 "유정이 필요로 하는 의복, 침구, 약품, 평상, 곡식, 집 등 모든 구체적인 필수품에서부터 일체의 모든 안락한 환경, 지위, 이익, 명예, 공덕, 경지, 성품, 아들딸, 복덕 등 무엇이든 그 원하는 바를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열반으로 이끈다"고 한다. 지장보살은 '유정세계의 모든 것을 이익 되게 증장시키는 신성한 에너지'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지장보살은 우리에게 명부전(冥府殿)의 주존, 즉 사후 세계를 관장하는 주존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 근본 의미를 살펴보면, '지옥에 떨어진 영혼을 구하는 구원자'로서의 의미에 앞서, '대지가 만물에 생명을 불어넣고 기르는 것처럼 중생을 윤택하게 증장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지의 신'으로서의 본원적 의미에서, 선업을 증장시켜 악업 중생을 구한다는 의미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여의주, 무엇이든 나오는 보배구슬

〈지장십륜경〉 서품에는 "구름과 비와 빗소리가 한 차례 지나가 법상에 모여든 모든 이를 장엄"하는 풍경이 나온다. 그런데 그 후, 모두가 각자의 손에 여의주가 들려 있음을 보게 된다. 이 여의주는 모든 원하는 것을 주는 마법의 여의주이다. 불교에서는 '궁극의 깨달음' 또는 '반야지혜'를 표현하는 도상이다.

"하나하나의 여의주로부터 온갖 보배가 비 오듯 하고, 또 온갖 광명이 비추는데, 그 빛으로 인해 한 하나의 유정들이 모두 시방의 갠지스 강 모래알만큼 많은 부처님 세계를 보았다."

모든 존재들은 이 여의주를 가지고 있고, 이 여의주는 부처님 세계인 법계로 직결된다. 여의주에서 나오는 빛으로 중생들은 온갖 원하는 바를 갖추고, 번뇌에서 벗어나 오묘한 즐거움(법열)으로 충만 된다. 지장보살은 지물로 항상 영롱한 여의주를 한 손이 들고 있다.(그림②)

여의주는 〈심청전〉 · 〈콩쥐팥쥐전〉 · 〈별주부전〉 등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 상징으로 등장한다. 물론 그 역할은 경전에 언급하였듯, 죽은 생명도 살리는 무엇이든 나오는 '불가사의한 보배'이다. 이 보배는 바로 불성(佛性)을 말한다. '여의주'는 우리의 무명(無明)을 타파하는 '깨달음' 그 자체이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그림①



그림②

그림①. 미국 워싱턴 스미소니언 프리어갤러리에 소장된 고려불화 〈지장보살도〉의 모습.

그림②. 깨달음의 상징 '여의주'를 들고 있는 고려불화 〈지장보살도〉의 손 도상을 확대한 모습. 여의주는 '무명을 타파'하는 역할을 한다.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 환인동 요가마을

30년 전통 민속죽염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축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놀라게 좋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250g 9,000원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1800년도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사)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의식교육 28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집학과 및 정원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조석예불 및 불공)	목	2시~3시30분	00명 (2년)
의식 전문반	·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 법 각종 사찰행사전문반 · 전통예능 (범음범패 : 삼신이운, 진언성, 복청게, 원강도량, 운심게, 오공양소리, 진령게, 사다라니, 욕건이, 실개수공발보리, 칭양성호, 관욕게, 합장게, 영산작법소리 등 30여곡)	수	2시	
작법무반	작법무(바라, 나비) 불교무용단 환영	수	3시30분~	
국악기반	태평소, 대금		5시~	

■ 개강일시 : 2021년 9월~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50번 나길 80-42 (사)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010-2314-1279, 010-3156-2211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 추천 (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영남불교예술대학